

주의 공헌 대축일

기도서 P. 237 B해

제1독서(이 사60, 1-6)

제2독서(에 페 3, 2-3, 5-6)

복 음(마 테 2, 1-12)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①5098)

□ 감 론



예수님의 웃음

유 종 환 신부

오늘은 성교회에서 온 세상 인류에게 진리를 알려준 것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동방의 세 박사들이 구세주를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기쁜 소식(복음)을 받은 날인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만리나 되는 어려운 길을 헤치고 갔다는 사실을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은 머나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시련을 당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오로지 구세주를 경배하겠다는 열망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 그분께 경배했고, 그들이 준비한 선물을 바침으로써 아기 예수님의 따스한 미소를 선사받았습니다.

우리들도 구세주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추위를 잊으며 정성을 다하여 아름답게 성당을 꾸몄습니다. 또한 고백성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안에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당에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모든 사람 안에도 계심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불우한 이웃에게 양식과 옷가지 등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불우한 이웃들은 우리의 친절한 사랑에 눈물겹도록 고마워함을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구유에 누워계신 아기 예수님께서서는 동방의 세 박사들에게 밝게 웃어 주셨듯이, 우리의 노력과 친절한 사랑에 무한한 축복의 선물을 내려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가는 곳에 예수님은 웃음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팔마천주교회 보좌신부>

1979년 사목방침

평신도사도직 활동을 육성하는 해
—全州教區



인간의 존엄성

—어린이 해와 1천만원

금년을 「세계 어린이의 해」로 정했다고 한다. 굳이 인간회복(恢復)이라는 문체에까지 연관시키지 않더라도, 이는 꽤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 생명의 존엄성이 특별히 정치·경제적인 차원에서 무시된지 오래이다. 생명을 모체의 뱃속에서 끌어내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지 오래이다. 어른들의 잔악한 범죄로 어린 생명까지도 죽여버렸다. 어른들의 냉혹한 무관심은 어린 생명을 열어 죽게도 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갈 작정인가?

어른들의 알파한 상혼(商魂)은 세계 어린이 해를 맞아 거금 1천만원의 미끼를 던졌다. 79년 1월 1일에 태어난 가난한 어린이에게 1천만원을 쓰겠다는 것이다. 그 돈은 꼭 그렇게만 쓸 수 밖에 없는가? 좋은일이 좀더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에서 하는 말이다. 마치 재주보기 놀음같이서 더욱 그렇다.

새해부터는 제발 투기성 놀음은 지양하자. 노력하고 일한만큼의 댓가가 주어져 모두들 성실하게 살아가는 풍토를 조성하자. 안정이 쪼달리는 급속한 성장은 지나친 경쟁을 낳기 마련이다. 지나친 경쟁은 인간을 물량으로 저울질하게 한다. 인간을 물량으로 평가하다 보면 인간의 존엄성은 생각조차 못하게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어린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겠는가?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사회를 우리는 소망한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 다같이 꿈을 꾸자. 여럿이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 60년전 우리민족의 꿈은 대한독립을 성취하는 것이었다. 비록 우리의 힘이 직접동기는 되지 않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졌다.

올해는 어린이(人間)의 존엄성을 높이는 해이다.

숲 정 이 산책



교회의 애로점을 찾아 봉사하십시오



사랑없이는 정의(正義) 없다.

—人間이 体制을 위해 있지 않고 体制가 人間을 위해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우리 모두는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정의를 완전하게는 구현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 이 말은 아무래도 너무나 쉽게 또 단순하게 생각한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에는 깊은 진리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다.

정의는 어느 점으로 보아서, 인간보다도 고귀하고, 인간 지상적인 삶의 여러 차원보다도 고귀하며, 지상 생활에서의 완전히 정의로운 관계(즉 인간끼리의 관계, 환경과 사회들간의 관계, 사회 구룹들간의 관계, 그리고 국가들간의 관계 등)를 확립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도 고귀한 것이다. 사람은 너무나 할것없이 정의를 만족할 줄 모르게 갈망하며 살고 또 죽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존재인 인간을, 인격의 깊이에서나 인간 생활의 여러 양상에서나, 세상이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정의를 갈망하는 바로 여기서 “정의 자체”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예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좋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마태 5. 6)라고 말씀하시어 정의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셨다.

우리는 정의에 대한 이러한 복음적 의의를 눈앞에 두고 정의라는 것이 인간의 지상적 삶의 여러 차원들 즉 인간의 삶, 사회적인 삶, 인류의 삶의 기본적인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도덕적인 차원인 것이다. 정의는 인간들의 존재와 공존의 기본적인 원리일 뿐 아니라 인간 공동체, 사회와 민족들의 존재 및 공존의 기본원리이다. 더 나아가 정의는 하나님 백성인 교회의 존재의 원리이며 교회와 사회 구조들 특히 국가와 국제조직들과의 공존의 원리인 것이다. 이렇게 광대하고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인간과 인류는 계속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할 일이며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정의는 서로 다른 연관성이나 양상에 따라서 세기마다 특색 있는 정의(正義)를 지니고 있었다. 정의의 개념에는 전달정의(傳達正義), 분배(分配)정의, 법적정의 그리고 사회정의의 개념들이 있다. 이 개념들은 사회와 국제적 관계에서 정의가 인간 윤리 질서를 위하여 무슨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다. 인간의 지상 존재 의미는 정의와 직결되어 있다고 하겠다. 전체가 개인에게, 동시에 개인은 전체에게 “어느 정도로 해 줘야 할 것이며” 서로 다른 체제와 연관성안에서 인간이 서로 “무엇을 해 줘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규정짓는다는 것—무엇보다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수 세기를 거쳐 지상에 존재하는 동안 여러모로 전체 사회 생활을 정의에 맞게 하려는 노력과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여러가지의 경향과 체제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때로는 변혁적인 활동성을 주의깊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여기에는 첫째로 체제의 문제가 아니고 정의와 인간의 문제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체제가 인간을 위하여 있는 것이어야지, 인

간이 체제를 위하여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체제 강화에 대응하는 방어가 필요하다. 나는 인간과 인간의 온전한 선익에 민감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체제를 생각하고 있다. 그것들은 질리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그 구조를 스스로 변혁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오늘날의 인류, 민족 그리고 국가 생활에서 “人權”을 규정하고 강화하려는 우리의 시대적 노력은 이런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현대 교회는 교황들의 많은 칙서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이 증명하듯이, 현대 세계를 향하여 계속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나는 확실히 이런 문제에 신경을 쓰고 또 쓸 것이다.

우리 각자는 정의의 분위기에서 살 수 있어야겠으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과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하여, 공동체에 대하여, 구성원으로서 소속된 사회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정의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겠다.

정의에는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고 형태도 많이 있다.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할 것”에 관한 것도 정의의 한 형태이다.

하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남겨 주셨다. 이 계명 안에 정의에 관한 모든 것이 포함돼 있다. 정의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다. 사랑은 정의보다 탁월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정의 안에서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다.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라도 그 애를 대할 때 정의로우야 한다. 정의가 불확실하면 사랑 역시 위기를 맞는다.

정의롭다는 것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며 현세적인 이익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로서는 노동에 대한 보수, 즉 말하자면 자기 노동과 토지에서 발생하는 결실에 대한 권리라고 하겠다. 그러나 사람에게 는 각자가 누리고 있는 명성과 존엄성, 그리고 대우가 응당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사람을 알수록 그의 인격, 성품, 지성과 그의 마음이 우리에게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그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과 그에게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 바를 구현시키는 것이다. —꼭 구현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정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계속해서 깊게 해야 한다. 이것은 논리적인 지식이 아니다. 덕(德)이며 인간 정신과 인간 의지, 그리고 인간의 마음의 포용 자체인 것이다. 정의롭게 되도록 기도하고 정의롭게 되는 방법을 알기 위하여 기도해야겠다.

(78년 11월 8일 일반 audiences에서 하신 언설중 일부 발췌문)

<註> 傳達正義(Communicative Justice) : 사상과 생각을 선입견이나 편중됨이 없이 올바르게 전달하거나 보도하는 것에 관한 것.



최후의 한 사람까지

김 이나시오

「세상이 온통 흐렸는데 나만이 맑고 세상 사람이 모두 취했는데 나만이 맑은 정신이기에 추방된 것이다.」(屈原, 史記列傳에서)

사물을 바로 보고 판단하며 실천하는 것이나, 옳은 것을 옳게 볼 줄 알고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회의 내일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대명제(大命題)이다.

「옳은 것을 겹다」하여 그것을 믿고 말하게 하고, 보란듯이 겹게 도색하는 자들의 뜻을 우리는 아픈 마음으로 본다. 그리고 행여, 옳것을 겹다고 말하는 그들의 가슴에 언젠가 죽음의 순간이 올 때 “주여, 제가 도색한 겹은 짚을 용서하여 주소서”하는 후회의 기도가 있어 주기를 비는 마음이다. 그러나 이는 “일곱번씩 일흔번이라도 용서하여 주어라”(마태오 18, 22) 하신 말씀 때문이 아니라고 차라리 믿고 싶다.

일일이 사제를 열거하기도 힘든 사회의 부조리와 권력의 비호아래 난무하는 폭력의 힘앞에 허물어 지는 작은 울분들이 있다. 이 울분들이 권력의 사탕발림에 속고 금력에 놀려 하나 둘 그 울분을 감추고 저들의 괴이한 합창에 휩싸여 입을 달싹거리고 있다. 도대체 이 장송의 행렬은 어디쯤에서 벗을 것인가?

그래서 더욱 우리는 아직 침몰할 수는 없다. 한사람 한사람 쓰러지는 이 과정이 아니고는 이 어려움을, 이 흐된 억눌림을 이길 수 없다. 쓰러짐을 거름으로 하여 더욱 큰 눈을 뜨고 더욱 귀를 열고 그들의 광무(狂舞)를 보아두고 그 흡산한 노래를 들어 권력과 금력과 폭력의 최면으로부터 약하고 가난한자들 하느님의 백성들을 깨우쳐야 하고, 최면에 걸려 허우적대는 이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하여야 한다.

“정의의 움직임은 느리더라도 나쁜 사람을 타파하는 일은 반드시 한다”는 호메로스의 말처럼 이 사회의 모든이가 원하는 평화와 정의의 세대는 반드시 올 것을 믿는다. 그것이 절령 우리 세대에 못은다 해도, 우리의 자식대에는 틀림없이, 비리(非理)가 땅 밑으로 기어들어 가고 밝은 태양아래 정의의 날개를 펼 날이 올 것을 믿는다.

“힘없는 정의는 무효하다”는 말이 생각난다. 오늘의 힘없는 정의를 힘있게 하려면, 그래서 그 정의가 실현되게 하려면 우리는 감추어진 울분을 뭉치고, 뭉쳐진 울분을 힘으로 정제하여야 한다. 그것이 커다란 힘이 될 때,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밤을 도와 기도하고 우리의 뜻을 위해서 순교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라도 남아 우리의 형제에게 뜻을 전하고, 우리의 자식들에게 이 말을 전해야 한다. -「검은 것은 겹어야 하고, 옳 것은 희어야 한다」고.

요십이 (284) 김병오



교우들의 전당

스타 사진관

전주시 교사동(동아여관) 앞

전화 ㉠ 6094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금·은·보석·시계

교우들의 연말 연시 선물은

황 시 계 점 으 로

황 의 선(아오스딩)

□전주시 서노송동 646 육교옆

☎ ㉠ 3252

개업안내

시내 중앙동에서, 제단 7년 경력으로 교우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하기 장소에 개업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우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용] 회 (가브리엘)

☎ 2-6222 (전북신문·사거리)

에이스 양복점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축) 개업

부안 육약국

서부 정루소 앞. 전화 3337

약사 육안드레아(진수)

※육약국은 교우를 위한 약국입니다

롯데·해태·유명제과 메이커 대리점
※교우님들에게 특별 봉사하겠습니다

식료·과자류 도산매

이안(李安)상회

□관선동 파출소 옆(舊·유안상회)

☎ (商) ㉠ 2681 · (自) ㉠ 9724

이영문(안드레아)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본당 실무자 교육...79년 1월 9일(화)~11일(목), 가톨릭 센터
2. 사도회 임원 연수회...79년 1월 17일(수)~19일(금), 가톨릭 센터
※ 각 분당에서는 3명씩 참가 시킬 것 (2월 1~3일에 있을 제2차 연수회를 감안하여 회장단 2명, 선교 전례·봉사·재경 위원장 각 1명씩, 도합 6명의 대상자 가운데 3명씩 안배 하실 것)
※ 회장단 1명은 유능한 지도자도 가하고, 위원장 대신에 해당 위원이나 유능한 지도자도 가함.
3. 성서·해성 교직원 연수회...1월 12일(금) 오전 10시, 가톨릭 센터
4. 전주 시내 분당 연합 성가 연습...1월 중에는 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동일 방직 해고 근로자 위한 성금...교구청·가톨릭 센터·여학생관 직원들이 묵상회를 마치며 15,590원
- 숭정이 편지실 전화봉기 성금, 감사합니다.
노충동 권석길 3천원, 황동 강덕창 신부 5천원, 전동 이순성 신부 5천원, 전동 이현재 5천원, 부자성당 사도회 5천원, 전동 김바르톨로메오 1천원
- 신년 교례회에 오신 여러 형제 자매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일 준비 부족으로 기념품(신자수첩)을 일부 형제 자매들께 못 나누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일 못 받으신 분은 본당 사무장님께 말씀드리 (서명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주시면 9일부터 있을 사무장 연수회 끝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 교리교사 성서 교리 연수회: 79, 2, 4(일)~8일(목)-4박 5일 가톨릭 센터.
- J. O. C 백순 단체 방문: 준비사항: 공문처리 관계, 회의록·회원 신상첩·회계 장부
- 방문일정: 중앙-1월 11일 오후 8시, 덕진-13일 오후 8시, 군산-14일 오후 7시 30분, 이리-15일 오후 8시
- 사제양성 후원자금통 숫자 보고 바람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웅복
보좌 신부 오승배
보좌 신부 임영복
사도 회장 이복석

1. 프란치스코 3회: 7일(일) 오후 1시 30분
2. 매일 축일표 나왔습니다(성 바오로 서원)
3. 새 영세자를 신심 단체 가입하세요
4. 시간을 지켜 미사 참례 합시다
5. 성경과 성가집을 지참 합시다
6. 전례담당
7일: 부사-안재홍, 김육기 해설-함문권
14일: 부사-양쟁수, 박영근 해설-임주택
- 지난주 봉헌금: 200,136원

(노충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김승희
사도 회장 권성희

1. 애령회 임원회: 오늘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아직 애령회에 가입 못하신분은 속히 가입합시다
2. 사도회 확대회의: 1월 21일 공식 미사후
3. 재속 청년회 정기총회: 오늘 10시~오후 5시까지 회원들의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4. 각 단체의 금년도 활동 계획표를 속히 제출하세요
- ※ 축! 결혼: 11일 오전 11시 신랑-김재권, 신부-방금에(가타리나)
- ※ 하느님께 감사헌금: 감사합니다 예비자, 김 양자씨 7,000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강덕상
사도 회장 유제상

1. 아직 봉헌금 신입 못하신분 속히 신입 바랍니다
2. 밀린 교무금 빨리 완납 하셔야죠
3. 주일학교 방학: 개학 2월 11일 오후 2시
4. 판공성사 아직 못보신분 주일에 보세요
5. 영세 사진 찾아가세요(사무실)
6. 사도회 월례회
7. 예비자 교리는 2월부터 시작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34,470원 교무금: 60,345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중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성우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 미사후(장동주 형제백)
3. 학생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4. 봉헌금: 오늘부터 봉헌 봉투가 새로 시작됩니다. 십일조 정신에 의거 신앙으로 감사하게 봉헌합니다
5. 미수된 봉헌금 완납 바랍니다
6. 판공성사 아직 못보신분 속히 보세요
- 지난주 봉헌금: 173,564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준

1. 사도회: 10시 미사후
2. 어머니 미사: 10일 오후 3시
3. 주일학교: 13일 오후 3시 30분
- 지난주 봉헌금: 45,315원

(휴정이)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구역장 반장님 참석 바랍니다
2. 사목교서 주임교육
3. 반사회: 진부 2동 1반·진부 2동 2반·진부 2동 3반·진부 2동 4반·진부 2동 5반
4. 성령 세미나 무사히 끝마침
7주간에 봉사 임원님 감사합니다
5. 봉헌 봉투 없으신분께서는 사무실에 문의 바람
- 지난주 봉헌금: 135,410원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이순성
사도 회장 유석중

1. 사도회: 저녁 미사후
2. 유아세례: 2시 미사후
3. 중·고 학생
동계 특별교리(1월 8일~11일 오후 3시)
모악산 등반(12일): 오전 9시 출발, 회비: 100원
4. 영세 기념사진 사무실에서 찾아가세요
5. 매일 축일표 구입(천사의 집)
- ※ 78년도 결산: 예산-18,444,000원
수입-17,995,418, 지출-17,919,747원
- ※ 79년도 예산: 거년도 40% 인상
- 지난주 봉헌금: 163,280원 교무금: 1,607,70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문정현
사도회장 채수현

1. 성령 세미나: 1월 30일부터 매주 화요일 7주간
장소: 파티마 성당 시간: 오후 7시
회비: 3,000원 참석하실 분은 미리 신청하십시오
2. 영세자 모임: 시간-1월 12일 오후 7시 30분
장소: 강당 준비물: 기도서, 성가책, 목주
3. 예비자 교리
직장인: 목요일-7시 미사후, 일요일-저녁 미사후
일반인: 목요일-오전 10시, 일요일-공식 미사후
연중 제 3주일(21일) 부터 시작합니다
4. 미사시간 변경: 주일-10시 공식미사
오후 1시반-어린이 미사, 미사후 교리
오후 7시 저녁미사
토요일-오후 4시 중·고등학생 미사 및 교리
5. 부녀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 지난주 봉헌금: 53,310원